

'행복지수 200%' 농업 생애 그리는 중'

농진청,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경진대회서 유럽상추 수경재배 시스템 등 총 5건 선정

수기 공모전서 귀농 여성 청년농 관련 작품 등 26편 뽑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 2일 분청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3년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수기 공모전에서 수상 결과를 발표했다.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은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10개 아이디어 중 전남 순천 정일민 청년농업인의 '피브이씨(PVC) 박막수경 유럽상추 재배시스템'이 받았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박막식 수경재배 시설을 보다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작품의 품질은 그대

로 유지하면서 생산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전북 남원 김민지 청년농업인의 '귀농인·청년농업인을 위한 노동력 공유 온라인 플랫폼'과 전남 순천 조성수 청년농업인의 '비타민 단백질 음료(세이크)'가 각각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정일민 청년농업인은 "영농 초기에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일체 소류(엽채류)를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청년농업인 영농생활 수기 공모전에서 충북 괴산 김지영 청년농업인의 '행복지수 200%의 농업 생애를 그리는 중입니다'가 대상에 선정됐다.

이 작품은 귀농한 20대 청년 여성의 생활과 청년농업인으로 자리매김하며 자긍심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내용을 담았다.

우수상은 충남 논산 강우범 청년농업인의 '다시 없을 여름, 꼬마 농부는 한결을 성장하고 있었다'와 전북 김제 김기현 청년농업인의 '농사 4년 차 연 매출 4억 도전 이제 네 차례야'가 각각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 김지영 청년농업인은 "저의 귀농 경험을 후배 농업인에게 소개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라며 "꿈을 이루며 농업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든 청년농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는 소감을 말했다. /장은성 기자



농협 임실군지부 등, 농산물

직거래 장터 고향사랑 답례품 홍보

농협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진산)와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임실군연합회(회장 백정진)는 지난 1일 서울관광농협 농산물백화점에서 열린 제20회 전라북도 농특산물 명품장터와 3일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에서 열린 제32회 전국 으뜸농산물판매행사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 치즈답례품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임실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모인 수도권 지역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임실치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시식용 포션치즈와 스모크치즈를 나눠주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진산 지부장은 "임실지역의 농·특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많은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또한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성과'

엔알비, 이동형 건축물 사업모델화·지역혁신 '대통령 표창'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주)엔알비와 (주)메디앤리서치가 각각 지역혁신분야 대통령표창과 글로벌 스타트업 분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주)엔알비는 지난 2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3 지역혁신대전'에서 중소기업 지역혁신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주)엔알비는 모듈 이동형 학교 건축물인 브릿지스쿨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2019년도 창업 이후 3년 만에 2022년 연말 기준 매출 201억 원, 고용 35명으로 급성장을 이뤘다.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과 지역과의 상생형 파트너십을 통해 건축 산업의 수출 전환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주)엔알비는 올 3월 조달청으로부터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등이 검증돼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G-PASS 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주)메디앤리서치는 3일 서울 코엑스 행사장에서 개최된 'KOBIA 창업 EXPO'에서 창업기업 중 수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뽑는 '글로벌 start-up' 부문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메디앤리서치는 의약품 리프팅 실, 필러, 자체개발 화장품 등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주)엔알비는 지난 2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3 지역혁신대전'에서 중소기업 지역혁신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2022년 수출액 148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올해 초 '백만달러 수출팀'을 수상했다. 또 남양야와 유럽 등으로 판로를 개척하며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권대규 창업보육센터장은 "현재 우리가 처한 글로벌 시대는 세계 기업들과의 초격차 기술력으로 경쟁을 펼쳐야 하는데,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도 아이디어, 기술력, 추진력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성과를 낸 우리 기업들이 자랑스럽다"며 "더 많은 우수 기업들이 배출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농촌진흥청은 지난 2일 분청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3년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민과 상생 고려 사업추진 방향 제시를"

농어촌공 이광래 감사 전북본부 방문·현장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이광래 감사는 지난 3일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해 2023년 업무성과 및 사업추진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부안 대초지구 배수개선사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이정문 전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한 도내 10개 지사장이 참석해 본부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전·청렴·ESG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현장방문에서는 부안 대초지구 배수개선사업현장을 점검했다. 대초지구 배수개선사업단지는 논공제배 확대를 위한 전문 생산단지로 22년 11



한국농어촌공사 이광래 감사가 지난 3일 전북본부를 방문해 2023년 업무성과 및 사업추진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월 착공에 맞춤형 재배기반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광래 감사는 혁신과 성장을 선도하는 본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과 지역민과 상생방안을 고려한 공사의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민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녹색공간 'NH 초록세상 제10호' 조성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지역아동센터에 천연 이끼 식물 공간 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가 지난 3일 군산시 문화동에 위치한 유레카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순실)를 찾아 NH초록세상 제10호를 조성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장경민 본부장 조미현 농협은행 군산시지부 지점장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해 천연이끼 식물인 스칸디아모스와 자자나무로 만든 식물벽을 전달했다.

조성된 식물벽은 습도조절과 실내 공기정화는 물론 노후 인테리어 개선 및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 증대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도내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NH초록세상, NH교실숲 등 다양한 맞춤형 사회공헌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3일 군산시 문화동에 위치한 유레카지역아동센터를 찾아 NH초록세상 제10호를 조성했다.

활동을 펼쳐나가며 ESG 경영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김옥기 기자

황토현농협장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정읍 황토현농협(조합장 유영기)이 최근 고부게이트볼장에서 관내 조합원 및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게이트볼 대회를 열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황토현농협 관내 4개 팀과 외부 4개 팀을 초청해 총 8개 팀(고부, 영인, 소성, 입암, 성광, 신대인, 이평, 연지)이 참석했다.

대회에는 임승식 전북도의원, 고경운 정읍시의장, 이복형 정읍시의원, 황해숙 정읍시의원 등 각급 사회단체장, 선수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게이트볼 협회의 공식 심판과 운영진을 섭외하여 경기의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공정하고 치열한 경기를 펼친 결과 신대인 팀이 최종 우승하는 영광을 안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축 전주매일 칭간
행복한농촌, 함께하는 KRC

우리 농어촌과 함께한 115년, 함께 그리는 100년의 미래

SINCE 1908

농어업 생산기반

농어촌개발·도농교류

농어촌용수관리

농지은행

농어촌연구

해외농업개발

KRF 한국농어촌공사